

# 도정, 행정시 7급이하 인력 빼가기 '심각'

### 원 도정 2018년부터 충원없이 매년 20~30명 차출 행정시 관계자 "일할만하면 도에서 빼가며 악순환" 도,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주목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대대적인 후반기 정기인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 2년간 제주도정의 행정시 7급 이하 인력 빼가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20~30명대의 인력을 도로 차출하면서도 인사교류를 통한 인력 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행정시의 불만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와 행정시간 인사교류는 4~6급의 경우 대부분 1대1로 이뤄진 반면 7급 이하

는 전적으로 인력 충원 없이 행정시의 인력이 고스란히 도로 차출되는 구조다.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에서 7급 이하의 경우 제주시는 8명, 서귀포시는 10명이 도에 전입 했지만 도에서 양 행정시로 전출한 인력은 전무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제주시는 10명, 서귀포시는 5명이었으나 도에서 행정시에 배정한 인력은 서귀포시 1명이 전부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12명씩을 보냈으나

도에서 행정시로 보낸 인력은 제주시 1명이 고작이다. 앞선 2018년 하반기에도 제주시가 16명을, 서귀포시가 11명을 각각 도로 보냈으나 단 한명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민선 7기 원 도정이 출범한 2018년 하반기 때부터 올해 초 상반기 정기인사까지 행정시에서는 매년 7급 이하 20~30명대의 인력을 도로 보냈지만 이에 따른 도에서의 인력 보충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앞선 민선 6기인 2018년 상반기에 제주시에서 8명, 서귀포시에서 5명이 도로 각각 배정된 가운데 제주시에 다시 4명이 내려온 사례가 이에 비해 다소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행정시 관계자는 "한참 일을 잘할 수 있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을 도에서 쉽게 차출하며 비대

지고 승진도 이뤄지고 있는 반면 행정시는 9급을 새롭게 뽑아 업무를 교육해야 하는 등 일을 빼가시키고 있다"며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도 고쳐지지 않고, 가장 도민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숙련도가 낮은 신규 직원인 경우는 민원 해결도 잘 몰라 불친절하다는 말을 듣는 등 도와 행정시간의 일방적인 인사교류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는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보완하기 위해 최근 '제주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했다.도가 행정시 7급 이하 인력의 일방 전입을 최소화 하고 직접 9급을 채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백영탁기자 haru@ihalla.com

##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도, 예산편성 제도개선 도의회 무시"

### 김경미 의원 "세출구조조정 독단으로 하겠다는 것" 질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3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제도개선 의견을 두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열린 제38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행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과 관련 "시도의회와의장단협의회에서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라고까지 지적했다"면서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행정부에 제출한 제도개선 의견 중 '출연금 과목에 타당할지 재난·재해시 예비비 또는 국비 지원(성립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동의 예외규정 명시 필요' 개선의견과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상경비 등 지방예산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제11조(세출효율화) 신설 개정(안) 제안을 문제삼았다.

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병 지정병원에 대해 음압병실 확충사업비 지원에 따른 예산과목을 공기관자본

위탁사업비로 편성시 위탁사무를 종료할 경우 해당자산에 대한 회수가 필요해 출연금 과목에 자산취득 등에 대한 과목을 세분화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기관에 대한 자산취득 지원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도록 과목 설정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의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해 세출 구조조정시 예산심의권을 위반한 집행부의 월권행위(도의회 입장)로 규정함으로써 세출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며, 세수 감소 또는 지방예산 절감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세출효율화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상'에 신설함으로써 의회와의 불협화음 차단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를 출연금 과목은 재난재해시 의회 심의를 안받겠다는 것이며, 세출구조조정을 지방의회 심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장 독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결위에 공식적으로 해명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의회 경시, 의회의 역할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아달라"며 최승현 행정부지사에게 당부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성산읍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 설치·운영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부이·목재 등 주민에 공급

성산읍에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이 설치된다.

성산읍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양폐기물의 처리비용 절감·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을 운영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산읍은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수거한 폐기물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부이·목재 등을 원하는 어민 등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바다지킴이 등을 통해 수거되는 해양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일괄 처리돼 왔다. 수거되는 폐기물 중에는 어구·플라스틱·목재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것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성산읍은 분류된 폐기물을 지역에

홍보, 7월부터 원하는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의 운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함께 자원 재활용 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산읍은 지난해부터 바다지킴이를 운영하면서 모두 145t에 이르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했다. 혼합폐기물이 가장 많고, 플라스틱·목재·스티로폼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재활용이 가능한 부이·목재 등은 10t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산읍 관계자는 "해양폐기물 재활용은행의 운영으로 일부 폐기물의 재활용 길이 열렸다"며 "성산읍의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해양생태계의 순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현영준기자 yjhyeon@ihalla.com



한담해변 투명키약 주말인 20일 제주시 예월읍 한담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이 투명키약을 타며 제주 바다를 즐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가뭄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일제 정비

### 서귀포시 38곳 6.5km 규모

서귀포시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농업용수 공급 불량으로 불편을 겪은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용수 관로 20개소의 약 11km에 대한 교체 작업을 마쳤으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배수지 시설을 최대 450t 규모로 4곳에 설치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산·표선 지구에 2km 농업용수관로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약 14억원을 투입해 20개 마을 38개소를 대상으로 6.5km 규모의 관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관로망이 정비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24년까지 서귀포시 동지역을 포함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미사용으로 인해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대한 복구를 실시해 수질 불량 등 용도 상실로 인한 지하수공이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염분 농도 상승과 용수원 부족으로 매년 피해를 보고 있는 대정지구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뭄에 대비해 지역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농업용수 공급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맛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제주시 용담이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아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사업 등록업체(제18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속)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